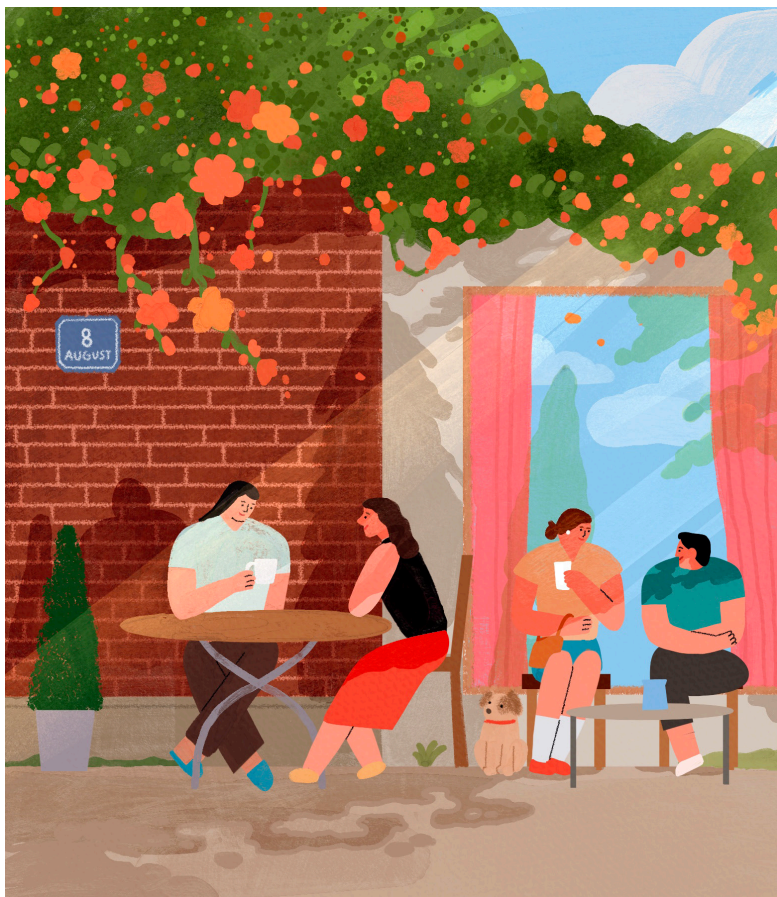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8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동탄테크노타워지점 거래고객
화성유일병원 허일 원장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거래고객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낯선 누군가의 연락 두렵다면 **IBK** 일제정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감정적 테러 보이스피싱

연락을 멈추고
주변에 상의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i-ONE 가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세요!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04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현실의 박물관 여성시대
— 그 길고 아름다운 여정



- 12 이달의 편지
'오펙이'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화성유일병원 허일 원장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 80 코너 속 편지
'어서 말을 해'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장하다 잘살아냈다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아침밥상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8월 10일 발행인(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디션(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현실의 박물관 여성시대

그 길고 아름다운 여정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해 온 여성시대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실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여성시대에는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눈물 그리고 벅찬 희망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매달 여성시대에서 발간되는 월간 여성시대는 방송 안의 이야기와 그 밖의 이야기를 모아 1988년부터 한결같이 여러분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고 아름다운 여정이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공개방송’ 현장에 전시되어 많은 여성시대 당당이들을 만났습니다.

월간 여성시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월간 여성시대가 있는 풍경,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성시대 대장이님께!

우리는 언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동그라미를 한가롭게 그리고
 입을 늦게 대물지 못한 동그라미에 잔대기 네개를
 붙여 अपना 아바님님을 그리던 시절부터였을까요?

그리다가 그리다가 여성시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속상할 때 기쁠 때 신성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사회에 위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울 때에도 편지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편지쓰기는 혼자 할 수 있는 쉬운면서도 고치한 일,
 쓰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기운이 나는 일,
 때로는 여럿의 마음을 묶어주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는 일
 그래서 편지쓰기는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간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신 편지는
 누군가에게 날아가 사랑새가 되고, 꿈과 희망,
 의리를 주고, 부칠 수 없는 편지도 여성시대가
 수신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 | | | |
|----|--------------|----|------------------|
| 12 | 오뎅이 | 42 | 엄마의 춤추는 치맛자락 |
| 16 | 이런 이웃 | 45 | 너무도 든든한 당신 |
| 20 | 내 소중한 아기 견호 | 50 | 여덟 아이의 엄마입니다 |
| 23 | 아들의 한마디 | 52 | 밥은 먹고 다니냐 |
| 27 | 결혼식 축의금 받던 날 | 57 | 다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기를 |
| 33 | 맛탕 할머니 | 60 | 숲이 들려주던 소리 |
| 38 | 금혼식 넘어 또 함께 | | |



Letter 01

오뚝이

이지희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서른다섯 살인 저는 섬에서 혼자 칼국수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연히 라디오를 틀어놓은 장소에서 여성시대를 접했습니다. 라디오에 '라'자도 모르는 저도 여성시대 양희은 선생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그날 이후 매일 여성시대를 시작으로 하루에 청취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젊지만 나름 삶의 풍파가 많았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이제 막 앞두고 있는 하나의 언덕 정도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데 무슨 인공 고관절?”이라는 물음표를 저도 아직 안고 있지만 작년 8월부터 걸을 때마다 육신대는 통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디스크라고 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갈수록 걷는 게 끔찍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픈 방향이 왼쪽이어서 모든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겨 생활하니 오른쪽 무릎과 발목이 자꾸 아파지더라고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병명이 좀 긴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래요.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괴사’라는 단어가 위협적이었어요. 진단받고 겁을 많이 먹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계속 ‘허리디스크인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든 나날이었거든요. 절뚝거리는 건 기본이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 기어서 간 적도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파서 그간의 시간이 납득이 되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사연 제목을 ‘오뎅이’라고 적었어요. 지금은 물론 수술 후에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도 있고 저는 이번에 저 자신에 대해 새삼 다시 깨달은 게 있으니 보통 사람들보다 긍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기어서 간 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한 것은 오진일 수도 있겠다. 내 몸에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추후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비장애인인 제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를 계속 가정하며 지나다가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알고는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해야 한다’는 절망보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는 쪽을 다행이라 생각했고 또 이 수술과 재활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감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에는 항상 견디기 힘든 시간이 동반되는데 제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뎅이’라는 편지 제목을 생각한 겁니다. 제가 많이 긍정적인 거 맞지요?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검색해 보니 이 질환을 가진 환우들끼리 소통하는 카페가 있어 가입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분이 수술 전후 고민과 과정, 후기 등 정보를 나누고 있었고 저도 그들과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과도한 음주와 그 외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저는 제시된 원인에 해당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당분간 가게 문을 열지 못할 거라 수술 전 마지막 장사하는 날인데 손님이 없어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얼마 동안이나 수입이 없을지도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영업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혼자 운영하고 있지만 가게가 큰 편이라 운영하지 않아도 고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숨도 나지만 반대로 수술 전에 무리하지 않을 수 있게 가게가 바쁘지 않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대책 없이 긍정적인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 엄마, 언니, 친구 중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항상 그들을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분도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힘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제와 오늘이 너무 힘들었다면 어떤 오늘과 내일에는 분명 행복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다른 분들도 긍정적으로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제 이야기를 끄적여 보았습니다.

Letter 02

이런 이웃

이세영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린 시절 끼니때가 되었을 때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외할머니께서는 어린 저희 남매에게 감자라도 삶아서 옆집 앞집에 돌려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전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살면서 이웃집 굴뚝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들곤 했지요.

그렇게 서로 쟁반이 돌고 소쿠리가 오가고 이웃들이 가족처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4~50년 전이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요즘의 아파트촌에서 이런 이야기는 텔레비전 속의 흑백 다큐처럼 느껴지지요.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저는 그런 옛날 기억을 갖고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시골 출신의 요즘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신식 아가씨죠. 도시에

서 아이들이 커갈 무렵 저는 반란을 일으키듯 전원주택을 찾아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이사 전부터 가족들에게 캠핑과 자연, 전원주택의 멋진 삶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켰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정도리입니다. 당시 7살, 5살, 4살이던 우리 집 딸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사를 왔던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전원의 삶에 적응이 되었지만 첫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첫해를 버텼나 싶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이름 붙은 신축 주택이었지만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고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정전이 되며 두꺼비집에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차가 출동하고 마당 뒤편에서는 뱀과 두꺼비가 수시로 출몰하여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오랜 만에 써보는 기름보일러 관리가 소홀하여 한겨울에 일주일 동안 동파로 냉골에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까지 무탈하게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제 나이 올해 오십 중반.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은 한참 막내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모두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시집 장가를 간 인생 선배님들이시죠.

우리 집 두꺼비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주말 늦은 시간인데도 동네의 지인분들께 연락하셔서 어렵사리 전기기사님을 모셔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 안 한 정화조가 폭발 직전이었을 때도 동네의 지인분들께 물어 물어 정화조 청소 차량을 출동시켜 주셨죠. 게다가

그때는 저희 부부가 모두 출근한 상황이라서 가족도 하기 힘든 정화조 청소를 옆집 사모님께서 모두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정화조 청소는 정말 가족도 지켜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근 빈 땅에 풀이 가득하고 벌레와 뱀이 걱정될 때는 모두 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그 땅을 밟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도 대장을 맡아주시는 저 건너집 사장님 덕분이었죠. 어찌나 부지런하고 인자하신지 저희의 서툰 농사일을 단 한 번의 싫은 표정 없이 차근차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함께 모여 얼굴을 보는 날이면소한 모임이 시작되지요. 잔치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집 마당에서나 저희는 함께 모여 자주 모임을 갖곤 합니다.

앞집 큰딸이 시집가던 날에 제 아내는 자기 딸인 것처럼 눈물을 펴펴 흘리고 건너편 집 사장님 환갑이 되셨을 때는 다 함께 모여 전이며 잡채며 음식을 준비해 거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외갓집 마당에서 동네 분들과 함께 잔치를 치르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는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된 자랑이니 더 해볼까요. 우리 집 내외가 모두 맛별이 직장인인 것을 알고 이웃집에서는 항상 이런저런 반찬을 나눠주십니다. 거의 매일 챙겨주는 나물, 채소, 반찬이며 아이들 좋아한다고 일부러 햄을 볶아 현관 문고리에 걸어주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서서 맛집이라도 만나면 그걸 꼭 사서 저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곳 송산은 포도가 유명한 곳으로 옆집 포도 농장 삼촌 덕분에 제철 포도는 산지 직송으로 더 이상 신선할 수 없는 상태의 최

상급을 맛볼 수 있지요.

정말 살면 살수록 이런 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이웃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들 덕분에 이사 올 때 4살, 5살, 7살이던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나눠주신 정으로 컸으니 정말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워주신 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사 올 때 사십 대였던 제가 오십 대가 되었고 이곳 정도리에서 저희 가족들은 이웃의 정과 따스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갈 예정입니다.

포도 삼촌네 신희집, 정수기 사업하시는 앞집, 철강업을 하시는 옆집, 퇴직 후 카페를 준비하시는 건넌집, 예쁜 강아지를 키우시는 별이네와 얼마 전 소중한 따님을 시집보내신 보리네. 모두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서로 기대어 1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좋은 이웃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여성시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정도리에서 서진이, 예진이, 유진이 아빠가 인사 올렸습니다.

Letter 03

내 소중한 아기 건호

애청자

저는 서울에 사는 건호 엄마입니다. 저희 건호는 이제 태어난 지 40일된 너무 예쁜 아들이에요. 건호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큰 심장 수술을 받고 현재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하고 약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 없이 그저 많은 약물에 의존한 채 고요히 잠을 자고 있어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수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에는 의료진께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면회를 하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큰 특이 사항이 없다고 회복되는 걸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수술 종료 후 만 하루가량 지난 시점에 가장 최악의 후유증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심정지가

왔다고 복막투석을 해야 하고 ‘에크모’라고 하는 심장을 도와주는 기계를 아기에게 넣는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 저의 소중한 건호에게는 계속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콩팥 기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위기들을 넘겨야 했습니다. 급기야 수술 후 약 일주일이지난 시점에는 뇌 초음파상에 중대한 뇌 기능 손상도 확인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건호의 중환자실 입원 이후 저와 남편의 삶은 ‘하루하루 더 내려놓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술이 잘되길 그 후엔 콩팥 기능이 돌아와 주길 그 후엔 다른 장기의 손상이 없길 그 후엔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길 그리고 이제는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 어느 날처럼 아기 면회를 위해 남편과 차로 이동 중 ‘여성시대’에서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자녀분께서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어느 여성분의 사연이었어요. 매일 남편분과 서로 위로하며 자녀분 면회를 다니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마음이 아파 사연을 차마 다 듣지 못하고 남편에게 라디오를 꺼달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도 말없이 라디오를 끄고 운전만 하더라구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왜 사연을 드리는지 그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냇두리를 하고 싶은 건지 세상을 원망하고 싶은 건지.

아기가 아프고 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하기 전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게 문제였을까.

태고 여행에서 너무 많이 걸었던 게 문제였을까.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했다면 저를 아프게 하지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기를 아프게 하시냐고! 나를 벌하시라고.

예쁘고 귀한 아기들을 볼 때마다 그 아기들의 사랑스러움이 사무치게 고통스러워 아기들을 쳐다보지 못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저렇게 예뻐서 나의 아기가 나의 무지와 과오로 인해 병실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혐오하고 다른 아기들을 예뻐하지 못하는 현실에 하루하루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우리 건호가 깨어나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 건호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아기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의식이 없는 건호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 소중한 아기 건호, 문제가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행여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엄마한테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건호가 수술 직후보다는 수치상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부분이 많고 회복이 더디다고 하십니다. 부족한 엄마인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매일 기도를 하고 하루 30분 면회 시간에 아기 귓전에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진심이 건호에게 닿아서 건호가 이 고된 치료를 견디고 이겨내 주기를 바라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암울하고 두서도 없고 해답도 없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누군가 들으신다면 잠깐이나마 저의 소중한 아기 건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Letter 04

아들의 한마디

안경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저는 3년 전 ‘벽화를 그리는 청소부’라는 사연이 여성시대를 통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문을 만드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열여섯 장의 나무 패널로 된 벽화를 우여곡절 끝에 완성시켰던 경험인데 그 일은 잠시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잔잔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림에 도전할 기회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실내 조경 일이라는 생소한 분야에도 뛰어들어 봤지만 체력이 더는 못 받쳐주어 그곳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나이가 오십이 넘으니 갈 곳은 몸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그러던 끝에 잠시 친정엄마의 채소 가게 일을 도우며 예전에 애니메이션 배경 쪽 일을 했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경력 단절녀로 이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쪽 일을 아예 접고 살았는데 친구는 사무실을 차려서 일본과 중국 쪽에서 일을 받아 직원들에게 일을 주고 본인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던 수작업은 벌써 옛말이 되었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펜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도래했더군요. 친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포토샵을 마스터하고 이제는 정말 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랑 나 이십 대에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넌 꾸준히 해서 사무실도 내고 정말 부럽다! 친구야.”

“왜 그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나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환갑이 넘어 시작해서 지금 칠십 대 중반이셔.”

친구의 말에 조금 전까지 의기소침해졌던 저는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지난 1월 중순쯤부터 친구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컴퓨터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지만 앞뒤 재지도 않고 무작정 덤벼들어 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물어 보가며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라곤 쪼다 켜는 기능 밖에 모르던 지라 수많은 기능을 배우고 외워도 정말 치매를 심각하게 의심할 정도로 배운 것을 잊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내 머리가 이 정도로 나뻐나?’

정말 하루에도 수차례 멘탈 붕괴가 오고 괜히 시작해서 친구에게 민폐를 주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괴감으로 지쳐갈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되어 가? 물론 힘들 테지만 난 도전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멋있다. 그리고 예전에 청소일하고 조경 일할 땐 추운

곳에서 엄마가 떨어져 일할 생각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사무실에 엄마 자리도 생기고 엄마가 좋아했던 그림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서 어떻게든 해보리라 결심했어요.

처음엔 친구가 바빠 보이면 일에 지장을 주기 싫어 몰라도 묻지 않고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좀 뻘뻘해지기로 했어요.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수첩에 꼼꼼히 메모까지 해 가며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1월 중순에 배우기 시작해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갔으며 5월 현재 26장의 그림을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작품에 들어갑니다.

오십 중반의 나이 정말 이제는 노안이 와서 시력도 떨어지고 젊은 친구들보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배경 작가들은 밤샘 작업도 불사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꼼꼼히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의 강도와 노고에 비해 업계에서 처우나 단가가 크게 좋아지진 않고 있다고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배경 일에 도전하며 보람을 느낀 것은 제가 쥔 펜 마우스 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이 한 컷 두 컷 완성될 때의 희열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도전을 응원해 준 섬세하고 따뜻한 딸 같은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들! 엄마가 정말 힘들었거든. 정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따뜻한 데서 일하는 게 좋다는 너의 그 한마디가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힘이 되어 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Letter 05

결혼식 축의금 받던 날

강진석 | 서울 구로구 천왕로

여러분은 결혼식 때 누가 축의금을 받아줬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의 경우 결혼한 지 20년도 넘어서 누가 축의금을 받아줬는지 전혀 기억 해 내지 못했고 아내 역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막내 고모의 늦둥이 막내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아내와 서울 개봉동 고모 집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그 때 초등 저학년이었던 아이가 고개를 가우뿔거리며 커플티를 입은 저희 둘을 신기하고 이상하게 쳐다봤던 생각이 납니다.

예식이 있기 일주일 전에 막내 고모가 큰형 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막내아들 결혼 소식을 알렸고 축의금을 받아달라고 저와 동생한테 부탁했습니다. 딱히 거절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한다고는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집에 오는 길

내내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축의금 받는 동영상에 여러 개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축의금 받는 과정에서 돈가방을 훔쳐 가는 등의 사기 절도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받은 축의금이 장부와 맞지 않을 때는 혼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낫다는 것과 축의금 받는 사람은 예식을 보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부 식당에 도입된 키오스크가 예식장에도 선보이고 있어 사람 없이 축의금을 받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동영상들을 살펴보다가 20여 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정해서 예식 전까지 다섯 번을 보고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막내 고모와 저는 열일곱 살 차이로 고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서울로 가기 전까지 시골 한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막내 고모는 여고 졸업 앨범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린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볼펜으로 여기저기 낙서하고 사람한테는 수염과 상처 자국을 그리고 점도 찍고 뿔도 그리고 심지어 가위로 오리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고모에게 크게 혼났을 일인데 당시 할머니가 저를 과잉보호 속에 키우셨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무 살 때 막내 고모 집에서 부모님 이혼으로 사춘기 방황하던 시절의 얘기를 고모 내외에게 밤늦도록 다 쏟아내면서 칩술을 잔뜩 먹고 이불이며 방바닥에 다 토했었는데 고모는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치워줬었습니다.

막내 고모는 이웃 동네에 사는 언니의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 결혼 했습니다. 두 내외가 부지런하고 알뜰한 데다가 운도 따라줘

서 부천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서울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사할 때마다 부를 축적하더니 지금은 지인들이 가까이 몰려 사는 신도림에 터를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고 차라리 하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축의금 받는 일에 대해 부담감이 절정에 이르렀고 제가 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동영상을 세 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일 약속한 10시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모부가 회사도 오래 다니고 나와서도 조그맣게 사업도 했기 때문에 하객이 많아 축의금이 많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도난 방지를 위해 돈 담을 용도로 튼튼한 등산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축의금 받기로 한 동생이 도착했고 축의대에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축의금 받는 요령에 대해 쓰여 있는 종이 자료가 있었는데 대충 한번 훑어봤으나 글자로 쓰여 있으니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첫 하객이 오기 전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동생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는 하객에게 인사하고 봉투를 받고 방문록에 이름을 쓰게 하고 식권을 나눠주고 주차, 화장실 위치 등을 물어보면 안내하고, 동생은 받은 봉투에서 돈을 꺼낸 후 돈을 서랍에 넣고 이름 적혀있는 봉투의 상단에 번호를 매기고 금액을 적고 장부에도 똑같이 번호 매기고 이름과 금액을 썼습니다. 저는 하객이 없을 때는 틈틈이 동생의 일을 도왔습니다.

11시 20분 예식 시간을 20여 분 앞두고는 하객들이 몰려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돌

아가신 큰고모 딸 은미 누나가 제가 아는 얼굴 중에 젤 먼저 와서 저와 동생의 사진을 찍었고, 4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 뵈 둘째 고모와 그 딸 아들 지현이와 승현이는 거의 20년 만에 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둘째 고모는 봉투에 쓴 이름이 제가 알던 이름이랑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언제인가 자신이 ‘용순’이 아니고 세련된 이름 ‘민정’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에도 새겨 놓더니 이번에 봉투에 ‘용분’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한 순간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니 금세 한가로워졌고 본격적으로 정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고무줄로 5만 원권 20장씩, 100만 원 묶음을 만들고 봉투는 순번에 따라 30장씩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어느새 신부 측 축의대는 벌써 사람이 없고 예식장 관리 직원이 다가와 화환 따를 건네주면서 몇 개 받았다는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물로 들어온 쌀을 챙겨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예식이 있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도 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신없어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는 자리 뒤편 벽면에 비밀의 방을 열어 주었고 책상 하나 딱 들어갈 공간에 책상 위에는 돈 세는 계수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셈을 하니 잘 놀리지지도 않고 일반 계산기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이 자꾸 틀리고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안은 몹시 더웠습니다. 밖은 다음 예식 손님들로 북적이는 소리가 났고 계수기로 돈을 세면서 맞춰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부가액이랑 실제 받은 돈의 금액이 백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시간도 1시를 넘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대로 셈하기



위해 등산 가방 안에 돈과 장부 그리고 계산한 종이까지 몽땅 넣고 다른 층에 있는 진짜 정산소로 갔습니다. 급하게 카운터 여직원한테 계산기를 빌려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맞춰 나갔습니다.

한 번에 딱 정확히 맞춰지기를 바라며 나름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정산소에서 여러 차례 셈한 최종 결과 장부

가격보다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때마침 고모가 저희를 찾아 정산소로 왔고 정산 결과를 사실대로 말하니 고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밀실이 아닌 사람들 지나다니는 에스컬레이터 근처 복도에서 고모 내외와 신랑에게 메고 다니던 등산 가방에서 장부와 현금 등 일체를 전달했고 비로소 축의금 받는 일은 끝이 났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받으며 인상 깊었던 사람은 옆집이라면서 이미 접수한 봉투를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사기인가라고 의심이 들기 전에 돈을 부족하게 넣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더 넣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입금했으니 식권 달라는 사람, 이름을 한자로 적는 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제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수표를 내는 사람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축의금 받는 일을 처음 해본 터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무척 긴장한 채로 임했으나 딱 10만 원 차이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도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급속도로 키오스크, 로봇 등이 도입돼서 결혼식 축의금을 직접 대면해서 받는 일이 수년 내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경험을 기록해 놓고 싶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며칠 후 막내 고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봉투 안을 일일이 살펴보니 15만 원이 더 나왔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비는 돈이 1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더 나왔다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봉투에 있는 돈이 다 빠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Letter 06

맛탕 할머니

애청자

승 덩송덩 썬 고구마가 기름 속에서 빠삭하게 튀겨진다. 지금
 지금 튀겨지는 소리마저 먹음직스럽다. 노릇노릇하게 튀
 겨진 고구마에서 기름을 빼내는 사이 팬에 꿀을 녹이고 생강청도
 한 스푼 넣어준다. 생강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고구마를 시럽에
 넣어 함께 버무린 후 견과류를 뿌려주는 것으로 고구마 맛탕은
 간단히 완성된다.

딸아이는 나를 닮아 고구마를 좋아했다. 입이 짧고 편식도 심했
 는데 고구마는 어떻게 해줘도 잘 먹었다. 특히 맛탕을 좋아했다.
 자다가도 맛탕 냄새에 놀라 눈을 떴고 대문 밖에서 잘 놀다가도
 맛탕 냄새를 맡으면 폴짝거리며 집으로 뛰어왔다. 생일 때도 고구
 마 맛탕 하나면 됐다. 매년 막냇동생이 시골에서 직접 키운 고구
 마를 보내준 덕에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맛탕만큼은 넉넉하

게 먹일 수 있었다.

딸아이는 임신을 해서도 고구마 맛탕을 즐겨 찾았다. 그래서인지 손녀는 고구마 이유식을 가장 좋아했다.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제 엄마처럼 고구마 맛탕을 즐겨 먹었다. 마트나 편의점에만 가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많은 세상에 손녀는 맛탕만 찾을 뿐 다른 간식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하루는 손녀에게 맛탕이 좋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고구마 맛탕을 입안에 넣고 오물거리면 겉면이 바사삭하면서 부서지고 그 속에서 촉촉하고 보드라운 고구마가 나타나 재미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놀랍고 사랑스러웠다.

손녀가 아토피를 겪게 된 후 나는 아파트 근처를 수소문해 텃밭을 분양받았다. 고구마를 직접 재배해 좀 더 건강한 맛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작은 텃밭이어서 큰 고민 없이 결정했는데 고구마 농사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고구마 줄기가 밟고랑을 덮을 때까지 풀을 뽑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고 허리를 굽히고 앉아 고구마를 캐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대신 성취감과 만족감은 기대 이상이었다. 흙 속에서 주르르 딸려 나온 고구마를 보고 손녀가 까르르 웃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했다. 나는 갓 수확한 예쁜 고구마를 골라 손녀에게 맛탕을 만들어주었다. 손녀 몸에 더 좋으라고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만들었다.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요리 활동이 있던 날, 맛별이하는 딸내외 대신 참석해 직접 수확한 고구마로 맛탕을 만들기도 했다. 그날 친구들에게 고구마 맛탕을 자랑하던 손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체력이 되는 한 오랜 시간 고구마 농사도 짓고 맛탕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손녀를 떠나보낸 후 몇 달을 집 안에서만 지냈다. 나는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서 시간을 자꾸만 거꾸로 돌렸다. 손녀와 함께했던 과거의 그날로 되돌아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면 “할머니가 해준 맛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말해주던 손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눈길이 머무는 자리마다 손녀가 남긴 흔적들이 가득했다. 한글을 익히고 난 후 내게 처음으로 써준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읽던 동화책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멈춰버린 손녀의 시간을 다시 열어볼 때면 그리움을 품은 가슴속에 한기가 한숨처럼 새어 들어 왔다.

집안에 틀어박혀 박제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구마 맛탕을 만들어봤다. 손녀가 떠난 지 6개월 만이었다. 꿀과 생강을 넣어 먹음직스럽게 맛탕을 완성했지만 결국 맛있게 먹어줄 손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고 말았다. 손녀가 없는 텅 빈 거실엔 달큰한 맛탕 냄새만이 가득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맛탕에서는 부드러운 윤기가 흘렀다. 꺾꺾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맛탕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손녀의 말대로 고구마 겉면이 바삭삭 부서지더니 이내 보드라운 고구마 속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졌다. 함께 먹을 손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공허하고 아릿했다.



그날 이후 손녀가 생각나 마음이 헛헛할 때면 맛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애끓는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달콤한 꿀과 생강청이 예민하게 곤두선 감정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언젠가 하루는 맛탕을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 뒤편에 위

치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았더니 손녀 또래의 아이들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쪽으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지는 해사한 웃음이 보기 좋았다.

그러다 문득 ‘저 아이들에게 맛탕을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리나케 맛탕을 완성해 따끈따끈한 맛탕을 싸 들고 놀이터로 나갔다. 아이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오가며 얼굴을 익혀왔던 동네 아이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다.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이거 한번 먹어볼래?”

나는 아이들을 향해 고구마 맛탕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뭘데요?”

“응~ 고구마로 만든 맛탕이란 간식이야.”

고구마 맛탕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은 저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내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맛탕을 받아 들었다. 맛탕을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이 딱 모이를 받아먹는 아기 새들 같았다.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먹으라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아이들의 눈인사에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 후로도 나는 틈틈이 맛탕을 만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덕분에 나는 엄마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맛탕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오늘도 고구마 맛탕을 만들며 손녀를 향한 애잔한 그리움을 달랜다. 내가 만든 맛탕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 꼭 손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내 품에 뛰어든 것만 같다.

Letter 07

금혼식 넘어 또 함께

박경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아 내의 잔기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불을 켜니 새벽 5시. 곁에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어주다 살비땀 뽀얀 아내의 무릎을 봅니다. 발바닥 손바닥도 살피봅니다. 삶의 굽이굽이, 가정의 구석구석과 가족의 모습을 넓고 깊게 새겨놓은 아내의 주름은 남편만이 읽을 수 있는 조강지처의 희생을 보여주는 갑골문자입니다.

19층 내 집 베란다 바깥 옥봉산 능선 저쪽 십자가 빨간 불빛을 보며 잠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봅니다. 벌써 우리 부부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함께한 결혼 39주년입니다.

아내는 제 공무원 박봉을 근검절약하여 모으고 또 모아 제 정년퇴직 전에 우리 네 식구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딸 아들 대학 공부에 시집 장가보내 독립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

편인 저는 이런 제 아내에게 33년 정년퇴직 후 연금 통장만 쥐어 주었을 뿐 무엇 하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풍족하게 해준 게 없습니다.

딸과 아들이 독립해 나갔기 때문에 저희 부부 둘이 살아가는 데는 제 연금이 부족해도 그리 불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인과 주변에서 ‘외국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할 때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와 제가 여권 만들고 함께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 여행 가 본 데는 제주도 두 번뿐 외국에는 못 가봤습니다.

올 2월 초순에는 외교부로부터 여권 재발급을 받으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재발급 기간이 6개월 앞으로 도래했다는 소리에 아내와 저는 여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권 진짜 깨끗하고 정말 가뵈네.”

퇴직 후 제가 가끔 “우리도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외여행 가자” 하고 말했지만 딸 아들 시집 장가갈 때가 도래한 시기여서 여유가 없으니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다음에 가요.”

이제 운전면허증을 국가에 반납하고 도공승(도시철도공짜승객)이 된 아내의 세월을 생각하며 올해는 무언가 좋은 일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39주년 기념일 아침, 며칠 전에 사와 숨겨둔 로션 한 통과 작년에 ‘우수 시민감사관’에 선정되어 받은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5장이 든 봉투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메모지에 손글씨로 <여보~ 상아 엄마! 우리 금혼식 때까지 아니 훨씬 더 오래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함께 갑시데이~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당신 실망시키지 않고 더 넓고 깊게 사랑하며 편안하게 하리다. 결혼 39주년을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당신을 진 사랑하는 당신의 평생 좋은 동반자 ♥박경영♥>이라고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을 맞아 또 한 가지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백수’ 줄여서 ‘화백’인 저는 도시철도를 타고 어제 꿈 좋은 꿈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이번 달에도 제 연금의 5%를 용돈으로 주었는데 그 자금으로 하는 희망의 비즈니스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나의 한 달 용돈을 연금의 5%로 책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제작을 만나 독립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용돈은 연금의 5%로 같습니다. 살림의 달인인 아내의 지혜로운 계산법을 넘볼 수 없기에 감히 용돈 인상 이야기는 금기사항입니다. 아이들 결혼 특히 아들 장가갈 때 들어간 예산의 아픈 무게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더더욱 입을 다물습니다.

제가 내릴 역에는 복권 1등이 많이 나왔다는 명당 복권집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그 근처에 나를 내려주며 “박상영 화백! 화려한 백수 파이팅!” 하고 외치는 듯합니다.

저는 이 복권 집에 작년 여름에 와 보았습니다. 여름 땀별을 양산과 부채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늘도 없는데 사람들이 50여 미터나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섰던 자리에 오늘 다시 서 보았습니다. 큰 희망과 허한 실망이 함께 공존하는 긴 줄의 끝에서 30분이나 기다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로울 단돈 1만 원의 비즈니스’를 실천했습니다. 자동 5천 원, 수동 5천 원어치 구입했어요. 번호는 어쨌

밤에 끈 좋은 꿈을 생각하며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역 계단을 내려오다 “아차차!” 하며 저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짜배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입맛도 사로잡은 유명한 맛집 짜배기를 사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맑음보다 흐림이 많은 제 건강 상태라 이런저런 약을 10년 넘게 복용하고 있어서 저는 짜배기를 좋아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제 손에 들린 까만 비닐봉지를 보며 “냄새 좋으네~” 하며 미소 짓고 짜배기를 맛있게 먹어 줄 때 소확행까지 느낍니다. 5분 정도를 걸어 6천 원어치를 사서 다시 도시철도를 탑니다.

운 좋게 한자리 비어 있는 노약자석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는 일과 살림 속에서 저는 세상과 조직과 사람 속에서 희로애락과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가 기어이 이겨 오늘날 여기 결혼 39년까지 함께 온 저와 아내입니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온 삶을 괜찮은 역사로 자부하는데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아온 것은 아내의 내조가 넓고 깊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결혼 39주년까지 오는 동안 두 번의 큰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제 잔병에는 주치의의 회진보다 아내의 곰살맛은 지청구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처방 약으로 마시며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조강지처와 함께 가는 여정이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제 아내의 이름은 ‘최부자’입니다. 아내의 이름에 걸맞은 큰 복이 쯤!하며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Letter 08

엄마의 춤추는 치맛자락

김유리 | 경남 김해시 인제로

“그 게 진짜 예뻐?”

긴 침묵 끝에 내가 물었다. 눈앞을 확확 도는 현란한 꽃무늬를 애써 무시하며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

내 진심 어린 질문에 왜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듯 엄마는 태연스레 말했다.

“이쁘지~ 화려하고 생기 돌고,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걸 입어야 해.”

빙글빙글 도는 엄마의 춤추는 치맛자락에 초록, 노랑, 빨강 제 주장 강한 단색들이 뛰놀고 있었다. 무슨 꽃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도는 문양에 내 눈도 뱅글뱅글 돌았다.

저 화려한 치마는 며칠 후 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선보일 예정이다. 신부의 흰색을 피하는 대신 모든 하객의 시선을 사로잡겠

지. 다시 한번 말려 봐야겠다는 결심이 설 때쯤 엄마가 말했다.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너무 맘에 들어.”

가격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백화점에서 샀다고 너스레를 떠난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보다 가슴에 내려앉는 건 맘에 든다는 말이었다. 당장 교환이든 환불이든 하러 가자고 치받으려던 말이 목구멍 뒤로 꼴깍 넘어갔다.

엄마와 나는 정말 취향이 다르다. 내가 하얗게 다린 와이셔츠라면 엄마는 무지개 빛깔 티셔츠랄까. 옷뿐만이 아니다. 외식은 코다리찜이라고 하는 엄마와 크림 스파게티를 부르짖는 나. 고기, 양파, 감자, 당근만 들어간 카레를 좋아하는 나와 달리 온갖 실험적인 카레를 만들어 내는 엄마.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취향 싸움을 벌였고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졌다.

“어떻게 그런 무늬가 이쁠 수가 있어! 촌스러워! 그거 입고 가면 나는 안 갈 거야!”

혈기 왕성한 10대였다면 사춘기를 방패 삼아 날카롭게 척을 칠 것이다. 이 전투에서야말로 꼭 이기고 말 거라는 비장한 각오로 엄마의 손에서 영수증을 낚아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회화가 충분히 된 능글맞은 30대다. 나이가 들어도 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항상 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성화된 패배를 존중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엄마의 취향이군요. 존중합니다.”

그래 엄마 마음에 들면 됐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얼굴색이 사네. 내 취향은 아니지만.” 슬쩍 뒷말을 붙여 조금은 엄마가 눈치채기를 바랐지만 더욱 신

나게 펄럭이는 치맛자락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엉덩이를 보니 그럴 기미는 없어 보였다.

엄마 옷장에 있는 옷들은 물이 빠져 흐릿하거나 색감 없는 흑백의 옷들이 넘쳐난다. 일하다 얼룩이 지니까 티가 안 나는 옷, 옆집 언니에게 받은 옷, 10년 전에 산 옷, 생활감 가득한 옷들 사이 엄마의 새 원피스가 빛났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본인을 위해서 산 옷. 알록달록 색감 뽐내는 매장에 붙들린 시선을 꾸역꾸역 갈무리해 오던 엄마가 한을 풀 듯 단박에 엮어온 원피스다.

그래 옷이 어떻게 생기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나에게 중요한 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엄마의 춤사위였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춤을 추나 싶어 입꼬리가 실실 올라갔다.

“어이구~ 이쁜 우리 엄마. 너무 곱다. 잘 어울려. 어쩜 색도 이렇게 이쁜 걸 골랐을까?”

100% 진심인 칭찬이 절로 입에서 나왔다. 종내에는 나도 같이 엉덩이를 흔들고 박수를 치며 화려한 원피스 환영식을 끝냈다.

함박웃음 짓는 엄마 얼굴을 보며 ‘앞으로 엄마 옷장에 새로 들어오는 옷들은 개성 넘치게 예쁜 옷밖에 없을 것이다’ 짐작해 본다.

아따, 돈 많이 벌어야겠네!

Letter 09

너무도 든든한 당신

애청자

이 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엄마는 제가 4살 때 그리고 언니가 8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니까 여자가 이혼하면 손가락질받는 시대죠.

더구나 보수적인 외할아버지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엄마는 이혼 후에 저희 자매를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엄마가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월급도 적어서 공과금을 내고 나면 ‘얼굴에 찍어 바를 화장품 하나 살 돈이 안 남았다’고 하셨죠.

저희 자매도 학창 시절 내내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료 급식을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그만큼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제 인생에는 ‘아버지’라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할 때 아빠가 버스정

류장으로 마중을 나오는 친구를 보며 어린 마음에 저도 그런 보살핌을 받고 싶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처음으로 낯선 존재가 나타났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제 입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해 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새아버지한테 처음 본 모습은 듬직한 뒷모습이에요. 마침 두 분이 동네 근처 아웃렛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띄는 거죠.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초여름인 그때 아버지는 반소매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은 등산복만 입는데 그때 연애했 때라 그렇게 입으셨대요. 우리 아버지 귀엽죠?

아무튼 제가 엄마의 남자친구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나이 스물둘일 때. 옛날에는 새아버지에 대한 흥흥한 소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 자매가 성년이 되고 나서야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냥 좋았어요. 언니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언니 집으로 옮길 계획이어서 비록 뒷모습만 봤지만 엄마가 혼자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동거를 시작하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초혼이라 엄마가 턱시도를 입혀준 거죠. 그런데 사실 엄마도 드레스를 처음 입어봤대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웨딩사진은 안방 화장대 옆에 걸려있어요. 사진 기사님이 엄마를 동안으로 만들어준다고 턱을 깎는 바람에 판사람이 됐지만요. 왜냐하면 엄마가 5살 연상이거든요.

우리 엄마의 5살 연하남. 두 번은 실패할 수 없어서 연애 1년 동



거 1년이라는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거친 우리 아버지는 외모만 빼면 로맨스 영화에 나올 법한 남자예요. 외모는 할리우드 배우 ‘돈 치들’을 닮았지만 제가 고향에 내려와 본 아버지 모습은 정말 사랑꾼 그 자체입니다. 밤엔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점심때는 회사에서도 늘 전화를 하죠. 엄마가 장을 볼 땐 옆에서 장바구니 끌면서 보조를 맞추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가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한 ‘여자로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제가 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던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변화였어요. 남자 더 크게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아버지의 울타리를 크게 느낀 일은 10년쯤 전에 엄마가 뽕뽕 언 길에서 넘어졌을 때입니다. 허리를 다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밥 한술, 국 한술 직접 떠먹이더라고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진 엄마의 짜증과 불만을 다 들어주면서요.

3년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진 저희 곁을 지켜주셨어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 몇 년간은 두 분이 할머니를 모셨고요. 할머니 방을 만들기 위해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에서 김치냉장고를 꺼낼 때 저랑 아버지가 힘깨나 쓴 기억도 나요. “나 이제 고아야 여보~” 하며 슬퍼하는 엄마에게 아프지 않은 꿀밤을 때리던 아버지가 기억나요.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 전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피보다 진한 무언가를 나눠 가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등기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잊고 살던 친아버지가 보낸 종이 한 장에는 <주야, 아빠다>라는 말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더군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아빠’라 칭하다니 그동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언니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자 바로 연락을 끊은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자신을 ‘아빠’라고 하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걸까. 그래서 그날 당장 결심했습니다. 부끄럽고 목구

멍에 걸려서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아빠’를 마음껏 외쳐주기로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서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빌라 주차장이 내려다보이는 창문에 바짝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렸죠. 빨리 ‘아빠’라고 소리치고 싶어서요. 아빠를 빨리 ‘아빠’라고 불러주고 싶었어요. 서른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입 밖으로 내리니 떨렸지만 익숙한 차가 주차장에 나타나고 아빠가 차에서 내릴 때 저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아빠!” 하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볼 만큼 크게요. 그렇게 모든 용기를 끄집어내서 외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했죠. 아빠도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빠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저의 부끄럼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나의 아버지, 아빠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 제가 아빠의 생신날 쓴 첫 번째 편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편지에 쓴 말 다 진심이에요. 내가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해 본 적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라는 거요. 그 말이 어색하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일 좋은 일은 내게 아빠가 생긴 일이죠. 아빠! 날 사랑해 주고 내게 ‘아빠’라는 세계를 선물해 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한 세계를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딸내미 소원이예요!”

Letter 10

여덟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지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저는 20년 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8명의 아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에서의 ‘엄마’ 같은 존재지요.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엄마!”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는 당찬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짹짹하고 마음 따뜻한 너무도 예쁘고 귀여운 내 강아지들이죠.

새벽 5시 50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6시 반이 되면 아이들 하나하나 깨우고 세면을 챙기고 옷을 골라 입히고 가방을 챙겨주고 따뜻한 아침밥을 먹입니다. 혼자서 8명 아이를 등교시키는 일은 절대 쉽지 않지만 이제는 꽤

능숙해졌습니다. 이른바 ‘멀티맘’이 된 거죠.

“엄마~”

“이거 없어요!”

“저거 주세요!”

“오늘 뭐 입을까요?”

“뭐 신을까요?”

아이들의 말은 재잘거리듯 쏟아지고 저는 그 모든 말에 “그래 알았어~” 답합니다.

아이들 모두 등교하고 나면 조용해진 집 안엔 쌓인 빨래, 어질러진 방, 흘린 물 자국과 바닥에 뒹구는 장난감들이 아이들이 조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합니다. ‘누구는 오늘 학교에서 속상하진 않을까? 누구는 점심을 잘 챙겨 먹을까? 누구는 친구와 다투진 않을까?’ 제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이자 선생이고 상담자이자 보호자인 저는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 하루하루의 감정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서운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로 되뇌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와 두 팔 벌려 안길 때면 세상 어떤 보상보다 따뜻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익히고 무엇보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마음을 하나씩 키워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강아지들 사랑해~ 파이팅!

Letter 11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정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꼭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매번 반복되었고 저는 그게 그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른이 넘었을 때는 그런 말마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겨우 눈을 붙였을 때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며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먹어요, 엄마. 매일매일 배 터지게 먹고 다녀요.”

그 말 뒤로 며칠간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사흘쯤은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전화 통화의 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 아무리 바빠도.”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정작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은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때로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기 일쑤였고 야근이 많던 시절엔 아예 저녁을 거르고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저는 성공이 급했고 회사에서 인정이 절실했습니다. 출근길엔 늘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뛰었고 점심시간에도 노트북을 보며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퇴근길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그런 일상의 쉽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쉽표마저 무시하고 싶을 정도로 바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회사 회의 중 눈앞이 핑 돌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단은 위궤양과 탈수였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규칙한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 저는 어머니께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 봐 또 업무도 해야 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보온 도시락을 꼭 안고 급행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아무 말쑼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밥 좀 먹자… 아들이.”

어머니께서는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푹 숙이셨지만 그 한마디



에 저는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보온 도시락 안에는 된장국, 달걀말이, 멸치볶음,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아침마다 먹던 익숙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달걀말이 하나를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수많은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겨울 아침 얼어붙은 부엌에서 손 호호 불며 도시락 싸시던 어머니. 비 오는 날 제 우산을 몰래 들고 나오셔서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던 모습. 그리고 밤늦게 귀가한 저를 위해 묵묵히 밥을 데우시던 모습. 그 순간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찐지 단지 몰라서 울고 그리워서 울고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담긴 따뜻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 오셨습니다.

아침이면 뜨끈한 미역국에 밥 한 공기, 점심에는 김치볶음밥, 저녁엔 된장찌개. 메뉴는 매번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음식마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 입원 중 저는 매 끼니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게 위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와줘서 엄마 밥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퇴원 이후 저는 하루 한 끼라도 꼭 집밥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기도 했고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싸주신 반찬을 담은 도시락은 회사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회사 옥상에서 햇살을 받으며 먹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대리님이 제 도시락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 집은 진짜 사랑이 반찬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도식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저는 꼭 묻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꼭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어휴, 우리 아들이 다 컸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저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이제는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엄마 밥이 그리워서라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십니다. 그 웃음 안에는 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를. 그 말에는 ‘잘 지내고 있니’, ‘몸은 괜찮니’, ‘마음은 안 다쳤니’, ‘내가 못 가줘서 미안하다’는 수많은 말들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꼭 챙겨 드세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잊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밥은... 꼭 드시고 다니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Letter 12

다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기를

애청자

내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엄마와 라디오를 들을 때면 엄마가 항상 “딸아, 라디오에 사연 좀 보내봐라” 하셨는데 난 그때마다 “알았다고~” 대답만 했지 보내지를 않았네요. 참으로 엄마 말 진짜 안 듣고 철도 없었네요.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신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난 아직도 철없는 아이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네요. 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나 았다가 재발하기를 반복하다 환갑 지나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참으로 불쌍한 내 엄마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작아지고 지쳐가는 내 모습을 엄마가 보면 “이런 미친 것~” 소리를 버럭

버럭 지르실 겁니다.

나는 2006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기를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알고 시댁에서 대출받아 치킨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을 했는데 내 팔다리가 붓고 숨이 차지면서 동네 병원에 가니 큰 병원 가보라 해서 큰 병원에 가니 심장이 부었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심장 수술을 했고 치킨집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난 일할 수 없는 상태의 체력이 되었고 남편은 친척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돈으로 백만 원 벌자고 중국에 갔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백만 원 벌어 가면 중국에서 3개월을 놀고먹을 수 있는 돈이란 걸요. 그런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 남편은 현지에서 아가씨를 만났더군요. 그때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데 이메일을 중국 아가씨한테 보낸다는 것을 나에게 보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고 일은 일파만파 커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계속 쌓여 있었던 일들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시댁에 시아주버님 내외는 이혼한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그들은 지금도 잘살고 있다는 겁니다.

난 이혼할 때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위자료료를 받거나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받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

렇다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무식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무모하고 무지하고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즈음부터 라디오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혼 후 라디오를 들으면 나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란 모두 극복해 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잠깐 스쳐 가는 잔잔한 바람일 뿐 나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난 화가 났고 무기력한 내가 싫어서 라디오를 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세상의 소식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력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기력하든 말든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심장 수술을 두 번 했고 폐는 나빠졌고 관절염에 다리 골절로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땅속으로 꺼져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요. 며칠 전에는 여성시대를 들으려 휴대폰을 켜다가 채 10분도 못 듣고 켜졌습니다. 웬지 모르게 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게 일 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겁이 더 많아지고 더 소심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바꾸는 게 쉽지 않네요. 내일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까지는 아니라도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Letter 13

숲이 들려주던 소리

배재성 | 경북 포항시 남구 대해로

지난 4월 동네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산행 후 잠시 쉬던 중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고 베란다 너머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 헬기와 차량이 투입되고 강풍에 산불은 급속히 번졌습니다. 사흘 동안 불은 꺼졌다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 단비 덕분에 진화되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위력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불 이후 입산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동안 산행도 멈춰야 했습니다. 눈에 익은 능선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예전의 생기가 언제쯤 돌아올지 마음은 무거워졌지요. 지난 5월 중순 입산 통제가 해제되었다기에 걱정과 궁금함을 안고 아침 일찍 산행을 나섰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으니 너무 큰 상처로 남

지는 않겠지.’ 스스로 다독이며 산책로 입구로 향했는데 멀리서 풍겨오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 역한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산행길 입구에 도착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던 자연의 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숨 막힐 듯한 연기 냄새에 갇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걸 내어주던 자연인데 어쩌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까?’

젖빛으로 변한 숲속 풍경은 안쓰러움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부주의가 남긴 아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나섰다가 산길에서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살이도 모기도 보이지 않았고 산새들의 지저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편하다고 여겼던 자연의 모습이 숲의 진정한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앞서 가던 등산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그늘도 사라지고 햇살만 짹짹하니 쉬기도 힘드네요.”

“그늘 아래 벤치도 타버렸죠. 이제는 앉을 곳도 없어요.”

또 다른 등산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벤치 뒤에 빨강게 익은 산딸기를 따 먹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주고받는 이야기 속엔 잃어버린 숲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낯선 등산객이 말을 이어갔

습니다.

“저는 요즘 벌레도 없고 산행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숲속이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만 가득합니다.”

산불이 지나간 허전한 자리를 바라보며 끊어진 생명의 연결 고리에 대한 아쉬움으로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등산객들은 곳곳에 산새들의 먹이를 뿌리며 자취를 감춘 크고 작은 생명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를 준다고 새들이 찾아올까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새들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새벽이나 해 질 무렵엔 잠깐 들러 숲속을 관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니 잿빛 산등성이로 화재가 남긴 냄새가 조금씩 열려 질수록 이름 모를 벌레가 땅 위로 조심스레 기어 나오고 길게 드리운 산그림자 위로 산새 부부도 잠시 쉬다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근 내린 비 덕분에 그을린 나뭇가지 끝에도 연둣빛 싹이 돌아났습니다. 자연은 묵묵히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산행길에는 집에서 키우던 산철쭉 한 그루를 산에 심으려 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루일지라도 나비가 앉고 새가 쉬어가고 햇살이 머문다면 그곳은 다시 살아 있는 숲이 되겠지요. 불은 숲을 앗아갔지만 씨앗은 여전히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봄이 오고 숲속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꿈꿔봅니다.

이달의 손편지

내 인생의 굿웨더

김은영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딩동딩동 스크르륵 화르륵 차아악 달그락 달그락 분주한 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찬 곳에서 바다색 모자와 빨간 스트라이프
 앞 치마를 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나는 쉼 없이 새내기
 알바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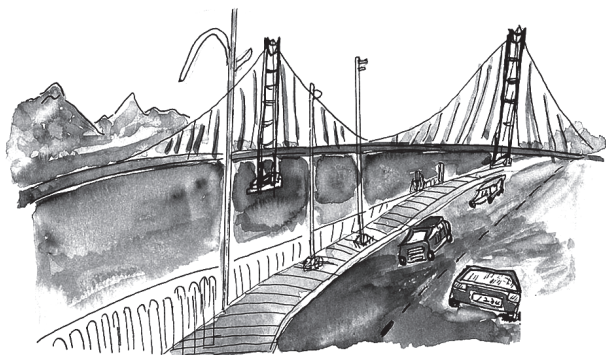
사장님을 비롯하여 셰프님, 나와 같이 일하는 주말 짝꿍도,
 1층 카페 귀여운 아가씨도 내게는 아들, 딸 뻘이다.

‘당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주말
 파트타임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썼다.

상담심리 전공, 부모자녀 상담 자원봉사, 교육청 학·폭 상담자원
 봉사(10년) 등등을 이력서에 쓰고 있는 나를 보며 남편이
 지나가며 한파디 한다.

“이력이 너무 동떨어져서 채용이 되겠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채용되긴 힘들거야. 불편해 할 텐데...”

초를 치며 지나가는 남편 뒷 꼭지에 백만볼트로 재려보았다. 나도 마음 한 켠이 무거웠지만 ‘뭐 어때 한 번 넣어보는 거지 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해보자!’ 이력서를 올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다.



우리 집에서 내 일터는 차로 25분 거리다. 가는 길은 완만한 곡선의 파란 해안길을 따라 멋진 마창대교를 스쳐야 다다르는 곳이다. ‘Good weather’ 맑은 비가வும் 좋은 날씨로 찬 곳வே더 이곳에서 내 첫 알바가 시작되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 데코를 하고 포스기 계산, 설거지도

하는 만능이 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죄중우돌, 우당탕탕 고과당 엉덩방아를 찧어서 매장의
모두를 놀래켰다. 아픈건 둘째고 창피했다.

다행히 아무문제없다는 병원의 진단에 한숨을 돌리며
더 주의를 하자고 마음 먹었다.

한 달밤이 지나고 적응을 열심히 하던 중 92세 천정엄마의
위중하시다는 연락에 깊은 밤을 운전해 엄마에게 갔다.

곰방이라도 바스러 질 것 같이 메마른 몸에 30여년을
교직에 우직하게 당당하게 계셨던 여장부가 바람 앞에
초들같이 흔들리신다. 그리고 이내 '밝은 불'이 스러졌고

한 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늘 꼭 나라에서 편히 계세요.' 소리없이 눈물이 계속 흘렀다.

“아, 뭐하니? 잠시만 울고 다시 일상으로 가야지 어서...”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난 다시 일상으로, 창원으로,
귀산동 굿웨더에 왔다.

사장님이 반겨주는데 내 눈길은 사장님의 중지와 약지에
감겨있는 봉대에 갔다. 내가 빠진 자리를 채우느라 개편
접시에 크게 베어서 십여바늘을 꿰매야 하는 큰 상처가

났다고 한다. 난 미안 함이 들었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나의 자리로 갔다.

난 이곳 콧웨더가 참 고맙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나를
일하게 하고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하니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받기도 하고 즐겁고 기쁜 일을 축하하고 나누는
손님들을 보고 나도 덩달아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고마운
곳이다. 20 대에도 해보지도 못했던 아르바이트를 늦은
셋 다섯에 한다. 55를 뒤집으면 22이다.

그래서 스물 두살의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라는 걸까?
나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망설여 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 보라고 응원합니다. 다시 젊음이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아... 남편이 내가 쓰는 글을 어깨넘어로 보며 “젊음이
찾아오는 것 같아?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좋네. 그래도 최대한
연골을 가리도록 해봐. 모자를 쓰고 빨간 앞치마로 시선 분산,
아주 좋은 방법이야. 허허허, 땡땡해 음... 아주 칭찬해.”
아마도 늦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져 적응하는 내 모습이
대견해 기분이 좋아 장난치고 싶은걸로 이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등짝에 스매싱은 쳐주고 출근해야겠습니다.
땡, 기다려!”



여성시대 사진방



[1348]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옥상 방수는 날이 좋아야 가능해서 더위를 피해 일 할 수는 없어요. 외부 작업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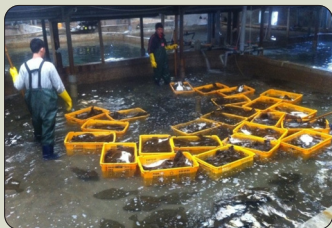
[5222] 정년을 앞둔 아빠 농부와 청년 농부 딸이 무더위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67] 토요일 주말농장에서 감자 캐 와서 주말 내내 찐 감자, 감자전, 감자 넣은 수제비로 매 끼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3744] 여성시대 책자 표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옆에 여성시대 책이 있으니 가져오기가 참 편하네요.



[1398] 여기는 광어 양식장인데 오늘은 9개월 동안 잘 키운 광어를 출하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광어 담으며 여성시대 들고 있어요. 그동안 수온 맞춰 주느라 진짜 고생 많았는데 오늘 경매 좋은 가격으로 잘됐으면 좋겠네요.



[3719] 신랑과 한 팀으로 일하는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오늘 현장 체감온도 40도 찍고 있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의

여성시대 가족 김재화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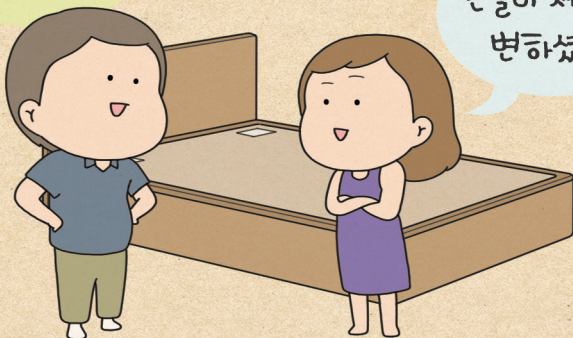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한 신희,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한 톨 한 톨 아껴가며 열심히 산 덕분에
집도 한 칸 장만하고, 아이들도 장성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쉼네 번째 생일에
큰맘 먹고 아내에게 돌침대를 하나 선물해 주었지요.

우리도 조금씩
쓰고 살아보자고

짠돌이 서방님이
변하셨네~



워낙 찜질방과 불가마를 사랑하는 아내는
땅이 줄줄 흐를 정도로 온도를 맞춰놓고는



아~ 몸이 녹는다 녹아.
삭신 썩시는 데는 역시 찜질이 최고네.
관절염이 낫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매일 뜨거운 밤을 보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욕탕을 가도 사우나를 싫어하는 저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곤목도 이런 곤목이 없더군요.

너무 뜨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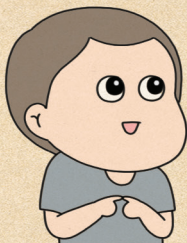


매일 밤 동댕구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어느 날 취업해서 타지로 간 딸의 방에서
잠시 책을 보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군요!



여보 우리 각방을...



뭐!? 애정이 식었구먼!
아니면 혹시 밤에 나 몰래
라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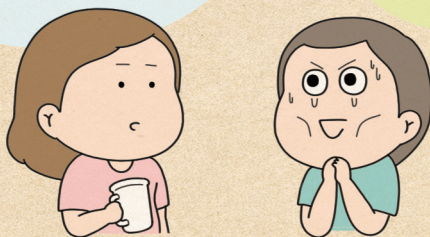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보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잤던 저는
돌침대에서 잔 다음 날 땀이 줄줄, 열이 펄펄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그때 말했던 각방 말이야.
일단 당신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엔 한 번만 해볼까?

정말!?
여보 너무 고맙워!!!



드디어 각방을 운허해 주었습니다.



부부라면 응당 같이 자야겠지만
수면의 질을 위해 각자 따로 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화성 서부권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



IBK기업은행 동탄테크노타워지점 거래고객

화성유일병원 허일 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2019년 개원한 화성유일병원은 화성시 서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진료 과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으로
승격 인가를 받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고 있는
화성 서부권 유일의 종합병원, 화성유일병원을 소개한다.

화성유일병원은 화성 서부권 유일
의 종합병원이다. 내과, 외과, 정형외
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관절·척추·뇌신경 등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질환과 급성질환 전반
에 걸쳐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화성유일병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종합병원의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점이다. 진료과별 단독 진료가 아
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외과 협진
및 영상의학 연계, 재활 처방까지 원
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
일과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
력을 갖췄다. 또한 24시간 응급의료
대응 체계와 진단·치료·회복 전 과정
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병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



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젠가 중증 외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분이 이송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과 정형외과, 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신속하게 협업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보호자께서 서울로 가지 않고 화성유일병원을 선택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우리 병원이 지역에서 종합병원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지역 환자들의 신

뢰를 받으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개원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인력 구성과 시스템 정비는 가장 어려운 점이 었다. 진료과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의 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진 확보와 시스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고 이를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외부 협력을 병행 하였다.

“환자는 진료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 새기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



감하는 진료가 진정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서도 사람 중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유일병원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 재활 의료, 정밀 건강검진 분야를 더욱 고도화하고 환자 중심의 입원 환경 개

선에도 힘을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동탄테크노타워지점 조혜성 지점장은 “화성유일병원과는 병원 설립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단순한 금융거래를 넘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을 통해 출시된 의료사업자 전용 상품을 통해 적시에 대출을 지원하고 의료와 금융이 결합된 시스템을 통해 병원 운영의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와주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님이 의료
약자에게 다가가는 실천을 강조하
며 지역의 보건복지 정책에 협력하
는 병원을 지향하는 만큼 국책은행

인 IBK기업은행도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화성유일병원이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동탄테크노타워지점 조혜성 지점장(왼쪽)과 화성유일병원 허일 원장

❗ 화성유일병원 허일 원장의 운영 노하우

1. 진단-치료-회복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라.
2.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라.
3.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화성유일병원

원 장 허일

전 화 031-355-0119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920번길 6

홈페이지 <https://hsyuil.kr>



대한민국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다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거래고객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올해 7월 1일 한국생산성본부가 68주년을 맞이했다.

1957년 창립 당시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GDP가 100배 넘게 성장하였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국생산성본부도 빠르게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온 한국생산성본부가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1957년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되던 시기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경영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업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선도해 왔다. 현재 국내 유일의 생산성 전문 기관으로서 산업교육, 경영컨설팅, 자격 인증,

생산성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 본부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지역본부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재 양성 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KPC는 단순한 교육기관이나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국가 생산성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현



장에 연계하여 실행하며 기업과 국민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생산성 혁신 기관입니다. 많은 분이 '생산성' 하면 단순히 더 많은 결과를 더 빠르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KPC가 추구하는 생산성은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국가, 기업, 개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석박사 비율이 50%가 넘는 전문 인력과 국가 통계 인증을 받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

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을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교육-컨설팅-연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생산성 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AI 기반의 컨설팅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부임한 박성중 회장은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과 정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국가 단위의 혁신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AI INNO HUB' 프로젝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도 AI 관련 교육은 있었지만 단편적인 과정이 아닌 실제 산업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떤 도구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AI INNO HUB'가 탄생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세계 일류 생산성 혁신기관으로의 성장을 추구한다. 국내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닌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관에도 컨설팅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컨설팅 내용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플랫폼화한 국내 최초의 컨설팅 플랫폼 'C-ON'을 출범할 계획이다.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관의 인력 모두 개개인의 역량은 무척 뛰어난데 그만큼 개성도 강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원팀이 되어 협업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화합을 통해 뒤떨어지지 않고 혁신할 수 있으며 글로벌 생산성 혁신 전진기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유문예 지점장은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유문예 지점장(왼쪽)과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❶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의 경영 철학

1.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 변화하고 혁신하라.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3. 개인보다 원팀으로 함께 나아가라.

한국생산성본부

회 장 박성중

전 화 02-724-1088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홈페이지 <https://www.kpc.or.kr>

코너 속 편지

여자는 모른다

81 어서 말을 해

85 냉장고 용사

88 아내의 변신은 내 죄

91 깜박이맨

96 아빠 T 아니야

사랑 사랑 사랑

99 남편 찾기 프로젝트

106 새 남편과 함께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어서 말을 해

애청자

남편은 요즘 최대한 미니멀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나도 꾸준히 동참 중이다. 오랫동안 갖고만 있을 뿐 쓰지 않는 물건들을 동네 채소마켓에 내다 판다. 모바일로 거래하고 약속을 잡는 건 주로 내가 하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건 남편이다.

한 번은 내 가방을 매물로 내놓았다. 내놓자마자 여기저기서 바로 연락이 왔다.

“오호~ 인기 많네. 좋았어.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분하고 거래 성사! 여보, 나 이거 팔렸어. 이따 나갈 수 있지?”

약속 장소에 다녀온 남편은 의기양양 내게 수확해 온 현금을 내밀었다.

“자, 여기 당신 가방 판 돈.”

“근데 왜 이만 원이야? 내가 삼만 원이라고 했잖아. 만 원 어디 갔어?”

“여자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지금 현금이 이만 원밖에 없다고 이만 원에 주면 안 되냐고 자꾸 묻길래.”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서?”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받아왔지.”

“아니 일이천 원도 아니고 만 원을 깎아주면 어떡해? 현금 없으면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에이~ 만 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하이고, 맙소사! 만 원이면 콩나물이 몇 봉지인지 아세요? 아 저씨!”

묵묵부답. 남편은 불리하면 말이 없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17년 타던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뽑았을 때다. 나는 잠시 은행에서 불일을 보고 남편은 차 안에 있었는데 일을 다 보고 나오니 범퍼가 좀 긁혀있는 게 보였다.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까진 없었는데 차에 스크래치가 났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긁었나?”

“아, 그거 좀 전에 어떤 분이 주차하다 그런 거야.”

“명함이나 연락처 받았지?”

“아니. 큰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영업자인데 장사가 안돼서 은행 대출 알아보러 왔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길래.”

“하시길래?”

“알았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

후… 속에서 천불이 났다. 뜨거운 콧김을 뿜어내며 나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아니, 자기는 얼마 전에 폐차 직전의 오래된 차에 점만 한 스크래치 하나 냈다고 차주한테 온갖 소리 다 듣고 생돈으로 범퍼까지 갈아줬으면서 왜? 도대체 왜? 우리 차는 수리해달라는 말을 안 했을까?”

“아니, 그게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야. 나는 그런 말이 영 잘 안 나와.”

에휴… 내 남편 입은 밥 먹을 때랑 나 부를 때만 필요한가보다.

며칠 전엔 현관문 도어락 배터리가 다 됐다는 교체음이 들려서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전화로 좀 사 오라고 부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편은 내게 전화했다.

“응 왜? 빨리 와. 밥 다 차려가.”

“저기, 있지. 여기 배터리가 안 보이는데?”

남편은 참 이상하다. 나한테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는 양 말도 만날 어디 있냐 잘도 물으면서 낯선 직원한테는 그거 하나 묻는 게 그리 힘들까. 김밥을 먹고 싶다가에 슈퍼에 가서 ‘김밥 김’ 좀 사 오라고 했을 때도 남편은 똑같았다.

“여보, 김이 어딴지? 여보, 단무지는? 여보, 햄은? 여보? 여보? 여보?”

“내가 직원이나? 내가 직원이나고! 옆에 직원한테 물어봐. 옆에 직원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남편은 한참 동안 오질 않았다. 결국 내가 다시 전화했을 때 남편은 밝은 목소리로 “찾았어 찾았어! 방금



찾았어. 곧 사서 갈게” 말했다. 뻔하다. 남편은 결국 직원한테 묻지 않고 드넓은 매장을 혼자서 헤매고 헤매서 찾았을 것이다.

식당에서도 반찬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절대 못 하는 남편. 눈 앞에서 누가 새치기를 해도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한마디 없는 남편이 나는 참 신기하다. 세월이 갈수록 나 아니면 아무하고도 말을 못 할 거 같은 이 남자의 속을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자는 모른다

냉장고 용사

애청자

저는 마흔둘, 자영업 9년 차. 딸 하나 있는 평범한 남편이자 늙어가는 엄마의 외아들입니다. 퇴근 후엔 냉장고 옆에 앉아 있는 남자입니다. 말이 웃기죠. 냉장고 옆에 앉아 있는 남자라니. 하지만 그 자리가 저한테 가장 조용하게 버틸 수 있는 제 자리입니다.

처음 가게 시작하면서 대출받은 은행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코로나에 불경기에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은 한 걸음도 나아지질 않네요. 한고비 한고비 넘길 때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불안감은 드는데 뽕족한 방법은 모르겠고 가끔은 누구라도 붙잡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는데 힘들다는 하소연으로 들릴까 봐 혼자 속으로 삭힐 때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내가 만든 가게 안에 갇혀 손님이 찾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형벌. 온

갖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참고 웃어야 하는 직업. '사장님'이라는 빔 좋은 개살구 같은 감투를 벗어두고 가끔은 큰 소리로 영영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다 큰 성인 남자가 그러면 또 꼴이 아주 우습지 않겠습니까. 허허 크게 한번 웃으면서 또 버티는 거죠.

하루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맨날 거기 앉아? 거실에 소파 있잖아. 멀쩡한 소파 두고 왜 만날 냉장고 옆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앉으면 다 보여. 당신도 보이고 엄마 방도 보이고 애자는 방도 보이고.”

제가 사랑하는 세 여자 그 누구에게도 저는 제 등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환자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판단력, 같은 말을 반복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을 낯설어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사람인지라 그날은 하루 종일 많이 지쳤었나 봅니다. 밤늦게 퇴근한 저에게 폭발하듯 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여보, 오늘 또 어머님이 갑자기 문 활짝 열고 사라지셨던 거 알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고? 이제 나도 지친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혼자 다 해야 해?”

“목소리 낮춰. 어머니 깨실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어머니 방문이 열리면서 들려온 말.

“니 마누라가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남 앞에서만 싹싹하고 집에선 아주 무섭구먼!”

두 사람 사이에 낀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었어요. 아내는 지쳤고 어머니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냉장고 옆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땀습니다. 캔 따는 소리를 들은 딸아이가 나와 조그맣게 묻더군요.

“아빠, 왜 또 거기 앉아 있어?”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앉아 있어야 집이 덜 시끄러워.”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냉장고 지키는 용사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용사지. 아무도 안 다치게! 안 싸우게 지키는 용사! 우리 딸 얼른 들어가서 자요. 그래야 내일 또 학교 가지.”

“응 아빠도 치카치카 꼭 하고 자. 냉장고 용사 파이팅!”

그날 새벽 냉장고 옆에서 저는 살짝 울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건넨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를 아내를 딸을 모두 감싸고 있는 저는 정작 누구에게도 감싸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아이가 웃을 수 있고 어머니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냉장고 옆에서 조용히 앉아 세 여자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눈물 보이지 않고 가족을 지킬 겁니다. 저처럼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하면서 오늘을 버티고 계실 모든 아버지, 남편, 아들들의 자리에도 따뜻한 응원의 불빛 하나 켜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아내의 변신은 내 죄

애청자

제 아내는 4개의 목소리를 장착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우선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오는 파자마 느낌의 내추럴 보이스.

“그때 기억나니? 그때 애, 그 오빠한테 까이고 울면서 우리한테 다시는 남자 안 만난다고 남자 꼴 보기도 싫다더니 켈 먼저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 깔깔깔~”

다음으로는 주로 아이들 학원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 나오는 평창동 사모님 톤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보이스.

“네~ 여보세용~ 네네~ 안녕하셨지요~ 호호호~”

세 번째 목소리는 우리 집 서열 저보다 하나 위인 초코를 대할 때.

“아궁아궁~ 우리 초코 와껴용~ 초코~ 우리 초코~ 뭐 줄까? 간식 먹을까? 간식 주까용?”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는 남편인 저를 부를 때 단전에서부터 끌

어울리는 짧고 굵은 샤우팅!

“여보!”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했던 시절에는 지금의 모습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군 제대하고 복학한 학교에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가수 강수지 씨가 우리 학교에 와있는 줄 알았단니까요. 여리여리한 몸, 창백한 피부, 긴 생머리, 아담한 키, 누가 툭 치면 금방이라도 픽 쓰러질 것 같았던 한 떨기 코스모스 같았던 여자. 수줍음이 많아서 제 앞에서는 항상 입을 가린 채 호호 웃었고 호프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날 3000cc 피쳐도 무거워서 킁킁대는 모습에 ‘아!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겠다’ 결심했었더랬죠. 신혼 초에도 그녀는 제 앞에서 입 벌리는 게 부끄럽다며 햄버거도 안 먹고 감자튀김만 깨작깨작 먹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녀가 결혼하고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한 떨기 코스모스 같았던 그녀가 지금은 한 마리의 맹수, 코브라가 되어서 제가 먹고 있는 햄버거까지 강탈하며 “왜 이렇게 남자가 깨작깨작해? 그거 더 안 먹을 거지? 내가 다 먹는다” 이러면서 벌크업을 하더니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고요.

연애 시절 제 앞에서 실수로 ‘뽀옹~’ 방귀를 끼고는 부끄러워 더는 못 만나다며 일주일간 잠수를 땀던 그녀는 요즘은 티브이 보며 웃다가 ‘부웅~’ 방귀를 끼고는 자기가 먼저 깔깔깔 임꺽정처럼 웃어요. 그런 아내를 제가 어이없이 쳐다보면 “뭘? 어찌라고?”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연애 시절 그녀의 자칫집 전구가 나가면 무섭다고 울며 제게 전화해 고쳐 달라 말하던 그녀는 이제 독일제 공구 세트를 구입해

서 스스로 배선을 하는 맥가이버가 되어 있죠. 털털해도 너무 털털해진 우리 아내는 이제 귀찮다고 여름에도 겨드랑이털을 깎지 않아요. 진짜 털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옛날처럼 머리 좀 길러보는 거 어때? 주말엔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당신 예전에 자주 입었던 그 미니스커트 그거 아직 있지?”

“더워. 이 더위에 무슨 머리를 기르라 해. 그리고 데이트는 무슨! 나가면 다 돈이야. 집에서 고무줄 바지 입고 수박이나 썰어 먹자.”

에휴...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이 은근히 연애 시절의 아내 모습을 그리워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내승과 애교가 많았던 아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를요. 출산과 육아 그리고 철없는 남편과 사느라 내승을 버리고 강한 엄마이자 아내가 되었다는걸요.

며칠 전엔 제가 딸기잼 뚜껑을 못 열고 끙끙대니까 아내가 “이리 줘 봐!” 그러더니 뿡하고 단번에 뚜껑을 열어주는데 마치 마동석 형님처럼 어찌나 든든하고 세 보이던지요.

지금은 아내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수줍음 많은 여자 친구에서 용맹한 전사로 진화한 아내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아내의 진화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변신은 내 죄. 여보! 내가 앞으로는 곱게 곱게 나이 들게 해줄게.

여자는 모른다

깜박이맨

애청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기분 좋게 운동까지 하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썩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뭐지? 집안이 왜 이리 캄캄해? 불도 안 켜고 다들 어디 갔나?”

어두운 거실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전등 스위치에 손을 올리는 찰나 “아 깜짝이야! 당신 거기서 뭐해?”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켜봐.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아내의 낮은 목소리. 이건 내가 뭔가를 대단히 잘못했다는 신호인데.

“뭐지? 내가 뭘 잘못된 거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던 그때 눈치 빠른 초등학교 5학년 딸내미가 휴대폰 후레시를 켜 채 쪼르르 달려와 두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뿔 모양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뿔났어.”

“왜? 무슨 일인데?”

아이는 엄마를 따라 팔짱을 끼며 입을 찔룩 어깨를 으쓱하며 ‘그걸 왜 나한테 묻냐’는 표정이다군요. 두려움은 직면하면 사라지는 법! 슬그머니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뭘데? 왜 그러는데? 밥은 먹었어?”

대답이 없는 아내 대신에 중학생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 돈 없어요? 돈 없으면 저 학원 끊을게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넌 또 왜 그래, 갑자기?”

“우리 집 돈 없어서 가스비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못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끊겼나본데 이 와중에 학원은 너무 욕심 같아서.”

“뭘? 가스가 끊겼다고? 전기도 끊겨서 지금 이런 거야? 전구가 나간 게 아니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이 무슨 전쟁 상황도 아니고 이게 다 뭐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치듯 물었어요.

“가스가 왜 끊겨? 전기가 왜 끊기냐고?”

그러자 턱밑에서 휴대폰 조명을 켜 아내가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며 되물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내가 말할 때 ‘응~ 응~’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내가 진작부터 알긴 알았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개무시하고 안 들을 줄은 몰랐네.”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 생활비를 드리기만 했지 모든 걸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결혼한 후에도 아내에게 월급만 갖다 줄 뿐 집안 살림에 관한 건 부모님이 하시던 걸 아내가 그대로 다 해준 셈이나 다름없이 살았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태어나서 가스비, 전기요금 이런 걸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참 편하고 무심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와 긴 세월 함께 살아준 아내가 3개월 전인가 갑자기 저에게 통장을 넘기더군요. 집안일에 너무 무심한 거 같다며 앞으로는 저 보고 생활비 관리를 맡아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의기양양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뭐~ 그 까이꺼~ 해보께!”

“우리 집은 주택이라 도시가스 아니고 LPG 쓰는 거 알지? 엘피지는 자동이체 안 돼. 매달 말일에 계좌이체해야 하는 거 잊지마.”

“오케 오케~ 한 달에 한 번 그거 뭐 챙기는 게 어렵다고.”

그랬던 제 모습과 함께 모든 게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여보 말이야. 계좌이체해야 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여보~ 잘 내고 있어? 지난달에 안 낸 거 같던데?”

“알았어 알았어.”



“여보~ 생활비 통장 당신한테 있다. 관리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답하는 동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끊길 수도 있다는 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집에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네?”

사춘기 딸도 질세라 옆에서 총알처럼 쏘아붙이더군요.

“배고파!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래! 밥 못한다고! 아빠~ 밥 줘~ 밥!”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저는 냉큼 휴대용 버너를 갖고 와서 라면을 끓이

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후레시에 의지해 냄비에 물을 받아서 끓이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씻을 준비를 하더군요.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라면 맛있게 끓였으니까. 다들 물기 닦고 어서들 오세요.”

“우와~ 이렇게 있으니까 꼭 캠핑 온 거 같다.”

그 와중에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 가스랑 전기 집에 돈 없어서 끓긴 거 아니야. 아빠 정신머리가 없어서 끓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고 학원 다녀요.”

급하게 이체를 하긴 했지만 주말이라 당장 작업자가 올 수는 없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리며 주말 동안 아내는 딸내미 데리고 아침 일찍 목욕탕 가고 저는 아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아들아, 아비는 빗자루를 들 테니 너는 물걸레를 맡겨라.”

전기가 필요한 청소기를 대신해 온 몸으로 집안 대청소를 짝 다 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해냈는데도 목욕탕 갔다 온 아내는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고 그 동안 아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꼼꼼히 신경 쓰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제가 이리저리 요모저모고모속모 다 돌아보며 식구들 챙기겠습니다.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아내 눈치 아들 눈치 딸 눈치 부모님 눈치, 이래저래 눈치 많이 분합니다.

이 시대의 남성분들! 내 말 맞죠? 우리 눈치껏 잘 살아남아봅시다!

여자는 모른다

아빠 T 아니야

애청자

지난주 금요일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라 제가 일하는 학원에선 퇴원생들이 잇따랐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학원 정리를 끝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만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한숨을 쉬며 습관처럼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는데 익숙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조성모의 ‘투 헤븐’. 스피커를 타고 퍼지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바라보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 울컥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던 제 입술이 떨렸고 어느 순간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다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된 첫째 딸이 놀

라서 묻더군요.

“아빠... 울어? 아빠도 눈물 흘려? 아빠 T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아이가 보기엔 저는 항상 단단하고 무뎌하고 감정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T’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최근엔 아이들이 수박을 먹고 씨를 화분에 심었는데 운 좋게 새싹이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렸나 봅니다.

“아빠, 이거 봐.”

“저번에 우리가 심은 수박씨 거기서 싹이 나왔어.”

그걸 본 저는 제 나름의 축하를 표현하려고 인터넷에서 새싹 키우는 방법을 찾아서 애들한테 알려주며 말했죠.

“이제 수박 씨앗은 너희 책임이야. 죽지 않게 잘 키워야 해.”

그때 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헐~ 우리 아빠, 완전 T야.”

근데 저는요 사실 완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삶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책임에 눌려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울었던 이유도 아마 그 시절의 제가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스무 살의 어느 겨울,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손을 크게 다치셨어요. 저는 바로 학교를 휴학하고 격주로 주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난 후 버스를 기다리며 길을 걷던 중 작은 옷 가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옷 가게 TV에서 조성모의 ‘투 헤븐(To Heaven)’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말없이 화면

을 바라보다가 뭔가에 흘린 듯 주머니에 있던 5천 원을 들고 근처 음반 가게에 들어가 제 생애 첫 카세트테이프를 샀습니다.

휴대용 플레이어 마이마이가 없었기에 집 전축에 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때 그 노래는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살아내는 데 집중하느라 제 감정은 묻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 말대로 때때로 감정이 메마른 ‘T’처럼 보였겠지만 그날만큼은 낡은 전축에 흘러나오던 그때 그 노래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던 ‘F’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남성시대 당당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 무뚝뚝한 ‘T’처럼 보여도 마음속엔 ‘F’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지쳐도 ‘괜찮다’ 말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동안 다정하고 섬세한 공감 세포가 다 죽은 듯 보여도 수많은 아버지들 마음속에는 아직 뜨거운 청춘의 기억이 살아있고 가끔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힘들면 한 번씩 울어도 괜찮습니다. 정 창피하면 남성시대 ‘늑대의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읊시다.

사랑 사랑 사랑

남편 찾기 프로젝트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당시 제 나이 서른여섯.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주말에는 저처럼 싱글인 친구들과 ‘핫플’을 놀러 다니는 나름 화려한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30대 후반이 돼서 그런 걸까요.

“민정~ 뭐해? 나 지수랑 같이 압구정 가려는데 너도 올래?”

“압구정, 몇 시에?”

“한 여섯 시쯤 만나서 저녁 먹고 근처에서 2차 가지 뭐. 너도 와. 지수가 보고 싶대.”

“근데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단 먼저 놀고 있어. 가게 되면 연락할게.”

“그래 연락해.”

친구들은 여전히 ‘어디냐, 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저를 열심히 불러주는데 저는 예전만큼 서울에서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슬슬 조용한 곳에 살고 싶고 부모님도 자주 뵙고 싶고 그러다 보니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면 올라오는 시원한 흠냄새, “민정아 밥 먹어~” 하는 엄마 목소리. 옛 기억을 더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큰 결심을 하게 됐죠. 다니던 회사도 이만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거의 20년 만에 시골로 내려오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죠. 30대 후반에 미혼인 딸내미가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맨몸으로 딸랑 본가에 내려오다니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나이가 서른여섯인데 이제 뭐 먹고 살려 그래? 모아둔 돈은 있어?”

“아우, 엄마 좀!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서 해. 너 결혼은 진짜 안 할 거야? 조카 아무리 예뻐해 봤자 네 자식 아니야. 너도 네 가족을 꾸려야지.”

“결혼은 뭐 나 혼자서 해?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엄만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면 좋겠어?”

“아유~ 저 웬수! 그래 니 맘대로 해.”

시간은 흘러 30대를 한 달 남겨둔 2024년 12월의 어느 날 그날은 집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민정아~” 하면서 저를 차분히 깨우더니 푸짐하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곤 제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할 얘기가 있다며 여기 좀 앉아보라

고 하시더라고요.

“민정아,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너, 더 늦으면 아기 갖기도 힘들어. 우리가 늙어 없어지면 넌 혼자일 텐데 엄마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도 결혼이 싫은 건 아니라니까. 애 낳으면 좋지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맘처럼 안 된다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가슴이 막 뛰면서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러지. 그러지 말고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봐. 아기 낳기만 하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엄마의 절절한 호소를 듣는데 그날따라 엄마의 설득이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아볼까?’

그렇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엄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른아홉 민정이의 결혼 상대 찾기’ 프로젝트가요.

저는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할까? 엄마 말처럼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의외로 심플하게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첫째로 성실할 것! 평생 함께할 파트너인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둘째로 신체 건강할 것! 육아는 체력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건강이 중요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좋아할 것! 이왕이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

를 잘 보듬어주고 마음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강아지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추려진 세 가지 조건. 저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새로 찾기보다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한 명씩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중이 있잖아. 개는 요즘 뭐한다니 애가 키도 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더구먼.”

“김일중? 개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아휴~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괜찮은 애들은 누가 다 채가고 이제 없단니까.”

그런데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엄마, 영철이는 어때? 왜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애.”

“아, 그 안경 쓰고 피부 하얗고?”

영철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만큼 똑똑한 친구였고 제가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 받아서 대신 옮겨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개 백과사전>을 몰래 읽다가 담임선생님께 혼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꽤 교류하면서 지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여러모로 훌륭한 남편감이었죠.

“나는 영철이 좋다! 그 친구 정도면 민정이 짝으로 딱 맞지.”

옆에서 불쑥 끼어든 아빠의 말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뭔가 온 세상이 영철이를 얼른 다시 만나보라고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개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니? 개도 벌써 애가 둘이면 어째?”

“아직 안 한 것 같긴 한데 기다려봐. 내가 수소문해 볼게.”

저는 간간이 연락하던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대뜸 이렇게 말했죠.

“나, 영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개 번호 있어? 아직 미혼인 거 맞지?”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도 영철이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식이 끊긴 지 15년 만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수진이한테 결혼 얘기했다며? 너, 그말 진심이야?”

“부담스러웠으면 미안해. 근데 나 꽤 진지하거든? 결혼 생각이 있는 거 진짜야.”

푹푹하고 예뻐던 대학생 때 이후로 서로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른 채 저희는 우선 깨툰과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애 감정이 살아나면서 영철이가 남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지?”

그렇게 잡은 ‘결전의 날’ 저와 영철이는 십수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흔을 코앞에 둔 상태로 다시 만났습니다.

“영철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 많이 늙었지?”

“아니아~ 나야말로 아저씨가 다 됐는데 뭘. 넌 더 예쁘고 우아해졌다.”

사실 얼굴도 한 번 못 본 채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상 만나서 서로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풍성한

영철이의 머리술과 균형 잡힌 단단한 몸매에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저희는 밤이 깊도록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원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지금 시골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중이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 힘들어지면서 모은 돈을 많이 날렸거든.”

“아휴, 고생이 많았겠네.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텨낸 거야?”

“응. 그래도 한탕으로 벌겠다는 허튼 생각은 안 했어. 지금은 착실히 회사 다니고 있고.”

대화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영철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오는 봄에 하는 건 어때?”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영철이를 만나고 왔다고 여전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와 결혼하겠다고요.

“아우, 경사다. 경사~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러니까 엄마, 이번 주말에는 영철이가 우리 집에 인사 오고 그다음 주말에는 제가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아니, 시간 끌 게 뭐 있어. 그냥 이번 주 점심은 우리 집, 저녁에는 댁으로 찾아뵙면 되지.”

저희 집뿐만 아니라 좀체 결혼 이야기가 없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예비 시댁에서도 소식을 들곤 춤을 덩실덩실 추셨대요.

“아니 김장할 때만 해도 장가 안 간다고 하던 놈이 보름 만에

장가를 가겠다니 이게 갑자기 웬 난리야.”

덕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저희는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만에 바로 양가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 주에는 프러포즈 여행을 떠났으며 그 다다음 주에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가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끼리 집도 가깝고 서로 안면 정도는 있으셨거든요. 결혼이 아무리 급하다 한들 아예 모르던 사이에 단 한 번 만나고 결혼을 진행하는 건 무모한 도전이었겠지만 어른끼리 서로 지역사회에서 평판을 알고 계셨기에 ‘초고속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후 저희는 웨딩 촬영이나 예물 구매, 혼수 준비 등의 과정에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 실속있게 준비하면서 착착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혼전이라도 아기가 찾아와주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올해 3월 아기 천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결혼식을 치렀고 지금은 임신 5개월 차 ‘예비맘’이 되었네요.

제 인생에 이렇게 큰 행복이 찾아올 줄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바뀔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시대를 들으시는 당당이님들께도 인연은 어딘가에 꼭 있다고 임자를 만나면 결혼은 정말 순식간에도 가능하더라고 그러니 희망을 품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사랑 사랑 사랑

새 남편과 함께

애청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화면을 보니 '새 남편'에게 걸려 온 전화다.

“어~ 왜?”

“동네 수영장 안 갈래?”

“알았어. 챙겨서 나갈게.”

이 나이에 '새 남편'이라니 수영 가방을 챙기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온다. 누가 보면 어찌려고 이렇게 딱 하니 낯 뜨거운 이름을 설정해 놓았을까 싶겠지만 남들이 들으면 납득할 만한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다.

별써 3년 전 일이다. 아이들 공부방 일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때마침 불어온 '공인중개사 시험' 광풍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해 보니 이게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닌 거다.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서울대를 졸업한 당시 여성시대 진행자였던 서경석 씨도 겨우 겨우 합격했다는데 서울대 근처도 못 가본 나 같은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엄습하는 불안감에 시험 기본서와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의 기본서가 총 여섯 권. 오후 1시부터는 공부방에 가야 했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다. 거기다 저녁에는 밀린 집안일도 해야 했고 겨우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어 붙여 공부에 올인했으니 나 자신을 보살필 여유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말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저 중요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다 끝나면 그때 바로 수술받을게요.”

“며칠 입원할 시간도 없으세요? 허참, 저도 은퇴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봐보고 싶네요.”

건강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다. 쇠약해진 몸은 나를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했다.

“아니, 왜 불렀는데 말이 없어? 저녁 어떻게 할 거냐니깐? 배달 시켜 아니면 국이랑 해서 그냥 내가 차릴까?”

“아우 줘! 나 공부하고 있을 땐 알아서 먼저 먹으라니까.”

“알았어. 공부해.”

“여보, 여기 있던 가위 못 봤어?”

“가위 못 봤는데?”

“아우~ 애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짜증 나! 그냥 다 짜증나!”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를 응원해 줬던 남편은 짜증 섞인 내 말과 행동에 점점 섭섭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 좀 이쁘게 해주면 안 돼? 듣는 나도 기운 빠지고 힘드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니 맨날 내 앞에서 짜증만 내고 뭐 물건 찾을 때 아니면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내가 무슨 얘기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

“하... 저 책들 안 보여? 나, 시험이 코앞이야. 공부하라며? 여보가 도와주겠다고며?”

“도와주겠다 그랬지 내가 언제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샌드백처럼 지내겠다 그랬어. 이럴 거면 이혼해서 따로 사는 게 낫지. 안 그래?”

“이혼? 참나~ 그래! 그렇게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당장 법원 가. 왜 말로만 으름장이야?”

“그래~ 그러자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아파트 공동명의로는 어떻게 정리할래?”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니 다 커서 객지에 나간 아이들이 부랴부랴 내려왔다.

“엄마, 아빠! 한 사람씩 차분하게 불만을 얘기해 보세요. 언성 높이지 말고 상대방 비난하지 말고, 사실만 담백하게요.”

나 5분 남편 5분. 다시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 3분 남편 3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우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들들은 시시비비를 아주

냉정하게 가려냈고 부모님 인생도 중요하니 자신들 신경 쓰지 말고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했다.

싸움은 말려야 화력이 세지는 법. 생각보다 너무 쿨하게 서로의 행복을 찾아 떠나라니 우리는 숨이 죽었다. 그렇게 일단은 서로 노력해 보자는 말로 이혼 전쟁이 일단락된 거다.

나는 남편과 약속한 대로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미취학원 수술을 받았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남편만큼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 줄 거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변하게 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는 다행히 합격.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휴대폰에 남편 이름을 ‘새 남편’으로 바꿔서 저장했고 나 또한 ‘새 아내’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이 살자.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나 부동산 사무소 차리고 싶어.”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사무소가 줄줄이 폐업한다는 소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새 남편’이 나를 살렸다. ‘새 남편’은 사무실 창문에 선탱지도 붙여주고 간판도 직접 달아줬다. 그러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힘들면 자기한테 기대라고 가끔 짜증 내도 된다고 무조건적인 지지도 보내준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차례인 것 같다.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 옆지기와 걷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걸 알기에 오그라든 어깨를 털어본다. 2025년 여름 ‘새 남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장하다 잘살아냈다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창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정발산은 거의 정글 수준으로 무성하다. 가끔씩 스콜처럼 무섭게 쏟아졌다가 다시 푹푹 찌는 울여름 날씨 덕에 아열대 지방의 숲처럼 울울창창하다.

요즘 나는 부여에 자주 내려간다. KTX를 타고 공주역에서 내려 택시로 30여 분 가면 규암면 자온로 59, 옛날 우체국 자리에 새로 연 ‘이만총총31’이란 갤러리 카페가 있다. 작년 1월에 떠나신 올엄마 솜씨를 두루 함께 나누고 싶어 마련한 곳이다. 엄마의 퀼트, 포크아트, 유화, 크레이지 퀼트 등등 옛날 어른들은 바느질 솜씨가 다들 한 예술 하셨기에 우리 윤 여사님께서 남겨놓은 작품 가지수가 제법 많다. 다락에 따로 방을 만들어 보관해 두었는데 떠나시고 나니 칠순과 85세 때 열어드린 ‘올엄마 솜씨’ 전시회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그때 얼마나 많은 모녀들이 다녀가셨던가! 얼마나 많은 딸들이 “올엄마 솜씨도 뛰어나셨는데…” 하며 눈물 바람을 했던가!

이 땅에 토지대장이 생긴 1931년에 등록된 옛날 우체국은 적산 가옥+한옥의 형태로 지어졌다.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지었더라면 고생도 덜했을 텐데 옛것을 그대로 지켜내느라 말로 못 하는 시간과 정성과 화폐가 들었다. 우체국과 여성시대로 오는 술한 편지를 떠올려 ‘이만총총31’이라 이름 지었다(옛날엔 편지 끝에 꼭 이만총총이라고 썼다).

7월 초, 처음부터 거기 자리한 듯 천연덕스럽게 열었고, 소방서,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노인회관을 돌며 다 인사드렸다. 날 더워 설까 봐 떡도 돌리지 못했고, 타월이라도 준비할까 하다가 좀 선선한 바람 불 때쯤 제대로 신고식을 할까 하고 미뤄두었다.

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이 편안한 외갓집처럼 쉬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 함께 또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올 엄마 솜씨를 감상해 줬으면 한다. 무얼 모으길 엄청 좋아하셨던 할머니의 장식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 갈 수도 있다.

사실 보통 수준을 넘는 컬렉션이다.

찬 바람 불면 북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워낙 작고 좁은 공간이라 몇 명을 모실 진 모르지만 아담하고 작게 시작하겠다. 나중에 방송일이 힘에 부치면 이곳을 찾아와 쉬어가길 원하는 이들과 얘기 동무도 하면서 나이 들어가겠다.

엄마 칠순과 85세 때 만들어드린 책자가 남아있어 합본을 만들었다. 귀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뭐든지 버리지 못하는 덕에 착착 다 들어맞아 희한한 기분이다. 엄마, 딸 셋에 손자손녀 그리고 증손녀의 글까지 실린다.

대한민국에 이혼이란 단어가 귀했을 때 선두 주자였던 부모덕에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랄 수 있었던 우리 셋은 새엄마가 들어오고 겨우 2년 반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로 무너져가는 가세 속에서 잘도 견뎌냈다. 개네들 하고 놀지 말라는 이웃의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그 서러움을 연극으로 재연해서 웃으며 갇잡은 어른들을 서로 일러바치며 세월 따라 흘러왔다. 장하다, 잘살아냈다. 양희은, 양희경, 양희정.



아침밥상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건 아들의 아침밥이다. 아, 오늘은 또 어떤 구성으로 아침을 차려줄까.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은 요즘 부쩍 키가 크고 먹성도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지 않게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새 하루의 시작은 ‘밥상 차리기’가 되었다. 아내는 나보다 더 일찍 출근한 상태고 첫째는 학교 기숙사 생활 중이다. 그러한 이유로 둘째 녀석만 챙기면 되기에 맘이 한결 편하다.

하지만 요리는 전문 영역이다. 바쁜 아침,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건 솔직히 무리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냉동 볶음밥, 간편국, 밀키트. 달걀프라이는 그래도 직접 한다. 반숙으로 굽느냐 완숙으로 하느냐는 그날 내 컨디션에 달려 있다. 대단한 한 끼는 아니지만 밥과 국, 반찬이 갖춰진 식탁을 보면 나름 뿌듯하다.

이런 아침을 준비하다 보면 문득 내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나는 매일 아침,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집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국물 냄새로 잠에서 깨고, 식탁에 앉으면 갓 지은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먹을 점심 저녁 도시락까지 준비하는 올 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엄청난 정성이었고 사랑이었다. 엄마도 그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반찬 준비하는 일이 매우 고단했을 텐데. 그래서일까, 요즘처럼 냉동식품을 데우는 내 모습을 보면 괜히 엄마에게 고맙고 아들에게는 살짝 미안하다. 그래도 이 아빠가 항상 사랑 가득 담아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매번 냉동 밥을 돌리는 것도 아니잖니. 동네 반찬가게도 종종 가서 마른반찬도 준비하니까.

아침 식탁에서 아들은 말이 없다. 눈이 반쯤 감긴 채 밥을 먹거나 조용히 폰을 보기도 한다. 간혹 “계란은 반숙이 낫다”거나 “이 김 맛있다” 같은 짧은 말이 전부다.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하게 된다. 물론 그 고민의 끝은 보통 ‘다음엔 국을 바꿔볼까’ 정도다.

아! 매일 아침 나의 메뉴는 거의 정해져 있다. 당이 들어있지 않은 국물 시리얼에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 분말 한 스푼, 거기에 우유를 넣어 먹으면 아침 식사 끝. 난 이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좋은데 둘째 녀석은 금방 허기지고 싫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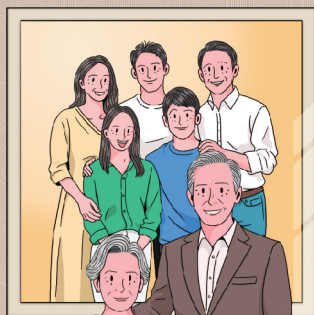
그래 사랑의 마음으로 참자.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도 아들을 위한 메뉴를 고른다. 어제 먹은 건 피하고, 최대한 질리지 않게 조합을 바꿔본다. 여전히 요리는 어렵고, 아침 시간은 짧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 한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된다. 끝으로 항상 내가 차리는 모든 아침 메뉴의 마무리가 되어 주는 김가루에게 감사하다.

인생은 당당하게, 상속은 단단하게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관리, 상속은 물론
기부와 사회 환원까지

당신의 뜻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055호(2025.05.19.~2026.05.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339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2.)

* 자세한 문은 가계상담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상통보명세서 및 만통보인도시(양자)를 받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시장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기간을 체결한 후에도 만통보인도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 서비스의 기본계약보수선率は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후채)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



IBK 기업은행